



KAA 저널

Voice of Korea Advertisers 2007 01· 02

- 09 신년사
- 10 | 특 집 | 브랜드전략
CI, BI, 브랜드 슬로건이 갖는 의미 | 임연석
제품과 소비자 사이의 특별한 그 무엇
“ 브랜드를 말하다” | 김자성
- 15 신입회원사
동문건설
- 16 KAA 진단
케이블TV 요금인상 지나치다
- 18 광고주간이설문
광고모델료 10억 너무해, 반 정도 줄여야
- 22 해외소식
뉴 미디어의 성장과 변화
- 27 Global News
- 28 2006 인쇄매체수용자조사
신문시장의 현재와 미래
- 33 명예기자칼럼
- 34 AD 맞수
휘센 VS 허우젠
- 36 협회 소식
- 37 KAA광장

www.kaa.or.kr

KAA저널 2007년 01·02(통권 171호) 2007년 02월 12일 발행· 발행인 민병준· 편집인 김이환· 취재편집 박 혁, 이수지· 편집위원 문철수 한신대 교수, 한광섭 삼성구조본 상무, 박형재 한국코카콜라 상무, 이준희 동아제약 팀장, 임성민 LG전자 부장, 이정희 웅진생크림 부장, 이희복 태평양 부장· 해외통신원 신인섭(뉴욕), 안숙자(뽕기에), 오상근(북경)· 대학생 명예기자 김미정, 장현주(숙명여대), 신창훈, 유현근(인하대), 이주미, 유은실(세명대), 진지혜, 정지예(이화여대), 정귀수(중앙대), 정승연, 박상신(단국대), 최병근(한양대)· 디자인 (주)진화기획 (733-4393)· 원색분혜 삼광프로세스· 인쇄 삼우아트· 발행처 한국광고주협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연회관 18층 Tel 02-782-8390 Fax 02-780-2391

정해년 새해를 맞아 모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민병준 | 한국광고주협회장

작년 한해 우리 경제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평가 속에 내수 부진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 고용창출 저조, 그리고 부동산값의 급등과 복핵 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민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광고계에도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의 개선을 방송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등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한미FTA와 맞물려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개방이 이슈화 되기도 했었고, 법정수수료제도의 개선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제도와 관행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계속 쟁점화 된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의를 거치고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그 해결책에 대한 공감대도 함께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집단의 이익이 공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올해도 광고제도 및 광고거래질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광고효과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사와 연구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광고주의 전문성 및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연수사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주, 광고회사, 그리고 매체사의 공동 발전과 상생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4.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광고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여, 광고의 자유와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그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
년
사